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후속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신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april4climate@gmail.com)
담당	정록(414 기획팀장 /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 010-7724-1528
제목	[후속보도자료] 414 기후정의파업 참가자 선언과 계획발표 기자회견담회
발송일	2023년 4월 6일(수)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 기후정의파업

참가자 선언과 계획발표 기자회견담회

“바로 지금,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바로 지금, 이윤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2시

장소 :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정동길)

1.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윤석열 정부가 브레이크 없는 반기후-친자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대기업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방안은 전혀 없이 각종 요금할인 혜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제주2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착공/준공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기후-친자본 정책이 반영된 엉망진창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3. 시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의 질주를 벌이는 정부에 맞서, ‘함께 살기 위해, 멈춰!’를 외치며 위력적인 414 기후정의파업이 진행됩니다.
4월 14일(금) 전국의 파업참가자들이 세종정부청사로 모입니다.

4. 이번 사회적 파업에 함께 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414 기후정의파업’을 통해 분명히 제시하고자 하는 기후정의의 구체적인 요구와 방향을 밝히는 ‘414 기후정의파업 기자간담회’를 지난 4월 5일 진행했습니다.

5. 당일 기자간담회 자료와 현장 사진을 첨부합니다. <끝>

<기자간담회 진행 개요>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 기후정의파업
참가자 선언과 계획발표 기자간담회

“바로 지금,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바로 지금, 이윤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2시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서울시 중구 정동길)

- 기자간담회 순서
- 사회 : 선지현(414 기후정의파업 기획팀 / 충북노동자시민회의)
- 발표 : 왜 지금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후정의파업인가 (한재각 공동집행위원장)
 - 414 기후정의파업의 의미
 - 대정부 요구 해설
 - 4월 14일 당일 세종 행동 계획
- 414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이유
 - 박찬식(제주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 나경동 (홍리스 야학 학생)
 - 송상표 (태안 석탄화력발전비정규 노동자)
 - 이이자희(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 국민행동 팀장)
 - 차상우(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기획국장)
 - 백운희(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질의응답

첨부 1 : 414 기후정의파업 기자간담회(4.5) 배포 자료